

**고2독서  
비상**

**5(3)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1. 글의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와 자연을 대하는 글쓴이의 태도를 묻는 문제
2. 글에 사용된 어휘나 조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

**[독서 이론]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란 무엇일까**

여러 지역의 문화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태도이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양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글을 읽는 것(여러 지역의 문화를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한 독서 활동)이다. 다양한 지역의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다양한 지역①)은 물론이고,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 문화권 등(다양한 지역 ②) 전 세계의 글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읽어야 한다.(다양한 지역의 글을 읽는 방법) 이때 문화적 편견(자신이 속한 문화와 다른 문화적 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는 태도나 인식)을 버리고 각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며, 글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가 중요하다.(다양한 지역의 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문화의 특수성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특수성을 넘어 존재하는 문화의 보편성까지 깨달을 수 있다.(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의 의의)

**[지문 분석]**

**㉠ 나무의 힘**

1900년대 초 숲이 우거져 있던 케냐의 고원 지대는 토질(흙의 성질)이 뛰어나 농작물 생산량이 풍부했고 비교적 인구 밀도가 높았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드넓은 보존림을 가꾸었는데, 그곳에는 코끼리와 표범, 물소, 그 밖에 다른 동물들이 수없이 많이 살았다.(생태계가 잘 보존된 환경) 케냐 사람들은 이 보존림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나무를 베었지만, 관습적으로 덤불이 자란 곳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곳 위주로 집을 짓거나 거기서 땀감을 구했을 뿐 더 크고 곧은 나무들에는 손대지 않았다.(케냐인들의 관습적인 자연 보호 방법)

**▶ 관습적으로 나무를 보호한 케냐 사람들**

케냐 사람들이 크고 곧은 나무를 보호한 데에는 나무에 정령(산천초목이나 무생물 따위의 여러 가지 사물에 깃들어 있다는 혼령. 원시 종교의 숭배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 또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키쿠유(글쓴이가 속한 부족) 사람들은 베어지지 않고 서 있는 나무를 ‘숲의 벌목에 저항하는 나무’라는 뜻인 무레마키리티라 불렀으며, 베어진 나무들의 [정령이 이 나무들에 깃들었다고 여겼다. 그리고 정령이 다른 나무로 옮겨 간 뒤에야 이 나무들을 벨 수 있었다. 사람들은 베어낼 나무에 나뭇가지를 기대어 놓았다가 다른 나무로 옮겨 가도록 하기 위해 케냐 사람들이 한 행위]으로 나무의 정령을 다른 나무로 옮겨 가게 했다. [([ ]:키쿠유 사람들이 정령이 깃든 나무를 베는 방법) 그런 조심스러움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은 것은 분명하다.(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 ‘무지막지한’이라는 단어는 현대 사회의 벌목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말임.)(‘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았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꼼꼼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은 키쿠유 사람들의 벌목 관습

많은 공동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무 그 자체(모든 나무를 가리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나무나 관목(키가 작고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며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을 정하고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 그 밑에 제물을 바쳤다. 키쿠유 사회에서는 이런 나무 가운데 하나가 무구모라 불리는 무화과나무였다. 모든 무화과나무(무구모라 불리는 무화과나무)가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키쿠유 제사장들은 무화과나무가 있는 곳에서만 제의(제사의 의식)를 올렸다. 제의가 열린 무화과나무와 그 주변은 신성한 곳이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 가까이에 있는 무화과나무 근처에서는 땀감으로 쓸 잔가지를 주워 오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이르셨다.(제의가 열리는 나무와 그 주변을 신성하게 여긴 키쿠유 사람들)(‘키쿠유 사람들은 무화과나무를 신성히 여겨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잔가지만 주워서 땀감으로 사용했구나.’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신성히 여긴다는 것은 맞지만 잔가지를 주워서 땀감으로 사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 안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숨어있을 수 있으니 선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 나무는 ‘하느님의 나무’(무화과나무를 신성히 여기는 키쿠유 사람들의 인식이 드러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 특정한 나무나 관목을 숭배하는 아프리카의 많은 공동체

무화과나무를 하느님의 나무로 인식하는 데는 일종의 생태학적 추론이 뒷받침된다. 깊이 뺨은 무화과나무 뿌리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한다.(무화과나무의 생태학적 역할) 따라서 무화과나무를 죽이거나 해치면, 흙이 불안정해지고 물의 저장과 방출이 어려워진다.(무화과나무가 없을 때의 생태학적 변화) 무화과나무를 약재나 식량으로 이용해 왔을 많은 사람이, 때때로 겪어야 했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무화과나무의 생태학적 역할 덕분임.)는 바로 여기에 있다.

▶ 나무를 숭배하는 생태학적 이유

인류 문명이 시작된 뒤로 나무는 식량과 약재, 건축 재료(나무의 역할①)였을 뿐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신과 연결되는 장소(나무의 역할②)였다. [ 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생명체 가운데 하나이므로,(인류가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까닭) 인류가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신성히 여기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나무가 식량과 약재, 건축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인류는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한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상 사람들이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한 이유는 나무의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무는 오랜 세월을 겪은 큰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종류의 나무들은 영적으로 중요하다. [ 가나 남부의 많은 공동체는 백단향과 이로코, 리아나를 성스럽게 인식한다. 특히 가나 은코란자와 말라위 일대에 있는 신성한 숲들과 요루바족 여신 오순에게 바쳐진 나이지리아 오쇼그보 근처의 숲(성스러운 숲, Sacred Grove)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유네스코에서 세계 유산으로 지정했다. ]([ ]:나라가 아닌 공동체 중심의 글쓴이의 관점을 알 수 있음.)

▶ 나무를 숭배하는 종교적 이유

나무가 주는 그들과 공간의 영적 울림(나무가 공동체 전체에게 중요한 장소가 되는 이유) 때문에 나무는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나무 아래 모여 앞일을 의논하고, 찬반이 갈리는 문제에 관해 부족 어른이 판단을 내리고는 한다. 따라서 특정한 나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장소로서 이어져 왔기 때문)(‘특정한 나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나무는 신성한 것이며,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은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므로 특정 나무가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키쿠유족은 자녀 양육이 끝난 사람들(= 부족 어른)을 공동체 생활 양식의 수호자이자 지혜로운 후견인으로 여겼다. 따라서 그들은 중재자이자 판관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부족의 어른 자리에 앉아 시이기나무 막대를 쥐고 있었다. 그것은 [

폭력이 **용인되지**(용납되어 인정되지) 않는다는 표시 ]([ :시이기나무의 의미)였다. 이런 관례는 [ **평화 협정**(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에 **조인하는**(국제법상 조약 체결 때 조약 당사국의 대표자가 조약 문에 동의하여 서명하는) 것만큼이나 구속력을 지녔고, 공동체 내부에서 그리고 공동체끼리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 :나무 아래에서 문제를 해결하던 관례의 의의) 신성한 숲과 그 나무와 숲에 부여된 영적이고도 상징적인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나무는 언제나 우리의 **동반자**(나무에 대한 글쓰이의 인식을 드러내는 단어)였다.

▶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나무**

나는 어느 날 콩고에서 200년 된 사펠리나무가 땅에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 **무척 소중한 중요한 어떤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다.**(사펠리나무가 베어질 때의 심경①) 나무가 쓰러질 때 **전 세계 모든 나무와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메아리가 울렸다.**(사펠리나무가 베어질 때의 심경②) 어쩌면 나는 나무의 **수령**(나무의 나이)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나 자신의 어떤 것이 들어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 **사펠리나무를 베는 광경을 본 글쓰이의 심경**

나는 그 나무가 ] 한 사람의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오래 살아온 강건한 **유기체**(생물처럼 물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생활 기능을 가지게 된 조직체)가 되기까지 ]([ :나무의 성장 과정, 대조적 이미지의 '작은 씨앗'을 통해 '강건한 유기체'가 된 나무의 경이로움을 강조함.)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 **감감한 흙과 눈부신 햇살과 촉촉한 물기에서 양분을 얻는 그런 여정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도, 나무는 여전히 신비로운 구석**이 있다. ]([ :나무에 대한 예찬①) 그렇게 **위엄 있고 영구적인**(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오래 살기 때문임.) 생명이 **그토록 작고 어린 것**(나무의 씨앗)에서 비롯될 수 있다니. ] **뿌리는 아래로 가지는 위로 뻗은 모습은 아름답기만 하고, 그 복잡다단한 자연 변화는 우리의 과학 기술이 아무리 정교하게 발전해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나무에 대한 예찬②)(나무에 대한 글쓰이의 예찬적 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시조를 선지로 제시하고 화자의 태도가 글쓰이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 중에는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이는 작품이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비하여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작품과 출제된 시조를 확인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무의 신비로운 삶**

**사펠리나무에서 나온 목재의 절반 이상이 연기로 사라진다는 사실**(필요한 부분 외에는 모두 태우기 때문, 글쓰이가 신성하게 여기는 나무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모습)(사펠리나무에 대해 무분별한 벌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무의 대부분을 목재로 활용하기 때문이구나.'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사펠리나무에 대한 무분별한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옳지만, 나무의 대부분이 목재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절반 이상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태워버리며 글쓰이는 이러한 사실에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에 나는 당혹스러웠다. ] **그 나무는 베어져 쓰러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비바람을 견디고 빗물에 흠뻑 젖고, 건기에도 끈게 서 있을 수 있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 :글쓰이가 당혹스럽다고 말한 이유,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견뎌낸 나무를 쉽게 베어내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유감을 알 수 있음.) **가지에는 온갖 종류의 곤충들이 살았다.**(여러 동물과 더불어 사는 나무의 생명력) 가끔 가지가 한두 개쯤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 동물과 새들이 몸통에 구멍을 뚫거나 속을 파먹을 수도 있지만 나무는 썩 없이 자라났다. **하지만 이제 그 나무는 없다. 살아 있기보다는 죽어야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에.**(글쓰이의 비판적 어조, 도치법을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임.)

▶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세태에 대한 아쉬움**

] 우리가 길러야 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은 **경험**(자연을 직접 만나는 일)에서 비롯된다. ]([ :자연을

직접 만나는 경험에서 자연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글쓴이는 자연은 보살피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며,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느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자연을 훼손하는 인간의 행위가 이러한 경험을 할 기회를 줄이는 것이라고 여기므로 이러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연, 특히 야생의 모습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채운다. 우리가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보살피려면 그것과 직접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자연과 만나는 일의 중요성) 자연을 보고 냄새 맡고 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을 잊을 것이고, 우리 영혼도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자연과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불행하게도 요즘 아이들은 자연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나무 한 그루 심어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자연을 접해 본 적이 없는 요즘 아이들에 대한 우려) 이들(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일을 놓치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이 자연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어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을 즈음에는 이미 때가 늦었을 것이다. 신성한 숲은 한번 사라지면 결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자연을 사랑하고 보살피야 하는 이유)

▶ 나무와 숲에 대한 글쓴이의 당부

## ☐ 이탈리아 기행

[9월 29일, 미카엘 제 전야]

베네치아에서 무엇보다도 내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민중(괴테가 주목한 베네치아의 특징)이다. 필연적이고 무의식적인 존재인 거대한 대중말이다. 이들 일족은 재미 삼아 이 섬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다.(이민족인 훈족의 위협을 받던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 지역 사람들이 늪지대로 이주하고 그 땅을 개척한 것을 의미함.)('이민족의 위협으로 인해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베네치아로 이주한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글의 내용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습서와 나무아카데미 분석 파일을 활용하여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하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고난이 가져다준 교훈에 따라 그들은 가장 불리한 지역(북쪽은 포강에서 내려온 모래와 흙이 쌓여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고, 남쪽은 아드리아해에서 밀려드는 바닷물의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해 넓은 갯벌이 형성됨. 섬이 많아 접근이 어려움.)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훈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점이 되었고,(무역의 요지가 됨.)('글쓴이가 베네치아 민중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이들이 겪었던 상황에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한자 성어가 어울리는군.'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민족의 위협을 피해 이주한 곳이 훗날 해상 무역의 요지가 되며 부흥하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 바뀌어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다는 의미의 한자 성어 전화위복(轉禍爲福)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인간의 앞일은 예측하기 힘들다는 의미의 한자 성어 새옹지마(塞翁之馬)도 출제될 수 있으니 미리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북쪽의 전 지역이 여전히 암흑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현명하게 대처했다.(염전, 어업, 선박 및 운송업을 주로 함.) 따라서 그들이 번창하고 부유해진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글쓴이는 자연을 점유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베네치아인들을 예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유를 짐작할 수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글쓴이가 자연을 정복한 베네치아인들이 부를 누리는 것에 대해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베네치아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예찬적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글쓴이는 자연과 인간을 합일의 대상이 아니라 이분법적 대상으로 여기며 인간이 자연을 정복, 지배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베네치아 민중에 대한 괴테의 평가

점차 집들이 뽕뽕이 들어서고, 모래땅과 늪지는 **암석처럼 단단한 지반으로 바뀌어 갔다.**(인공 지반을 건설함.)('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해 베네치아의 땅이 점차 안정화되었음을 의미한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의 모래땅과 늪지는 집 등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베네치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지반을 건설한 것을 통해 암석처럼 단단한 것으로 바뀌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집들은 조밀하게 심어진 나무들처럼 높이 솟구쳤다. **옆으로 확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집들이 뽕뽕이 높게 들어선 이유는 섬이라는 공간적 한계 때문)(베네치아 건물이 나무들처럼 높이 솟구친 이유는 늪이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이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의 건물이 높은 이유는 제한적인 땅의 넓이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이란 마땅히 한 치의 땅이라도 탐이 나는데, 처음부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도, 양편의 집들을 분리하고 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폭으로밖에 내지 않았다.**(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를 건설함.) 어쨌거나 그들에게는 **물이 거리와 광장과 산책로를 대신했다.**(수로와 바다 등이 다양한 역할을 함.)

▶ 베네치아의 지리적 특성 ①

**뱀처럼 구불거리는 대운하(대운하를 뱀에 비유함)**는 세계의 어떤 도로에도 손색이 없고, [ 세계의 어떤 광장도 **산마르코 광장 앞의 공간(베네치아 본토가 둘러싼 바다)**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공간이란 베네치아 본토가 반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넓은 바다를 말한다. 베네치아가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성격의 도시인 것처럼 베네치아 사람들도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산마르코 광장 앞에는 반달 모양의 공터가 있으며 이는 세계의 어떤 광장보다도 독보적인 공간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산마르코 광장 앞의 공터는 베네치아 본토가 반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넓은 바다이며, 글쓴이는 이 공간에 대해 세계의 어떤 광장도 상대할 수 없는 독보적인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선 도시 전체의 인상을 확실히 포착하기 위해 서둘러 숙소를 나섰다.**(여정이 드러남. 기행문의 특성) 그리고 안내자도 없이 동서남북의 방위만을 확인하면서 도시의 미로 속으로 들어섰다. **도시는 크고 작은 운하들이 이리저리 교차하고 있었고, 또 그 위로는 크고 작은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었다.**(베네치아의 모습①) 이 도시 전체가 얼마나 좁고 번잡한지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골목은 대개 두 팔을 벌리면 달을 정도의 폭이다.**(베네치아의 모습②) 아주 좁은 곳에서는 두 팔을 옆구리에 대기만 해도 팔꿈치가 벽에 닿는다. 물론 가끔가다 좀 넓은 길도 있고, 여기저기 작은 광장도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모든 공간이 좁다고 할 수 있다.**(전체적인 도시의 인상)

▶ 베네치아의 지리적 특성 ②

[10월 9일]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근사한 날이었다! 키오자 맞은편에 있는 펠레스트리나를 방문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곳에 '무라치'라고 하는, 바다에 맞서는 거대한 **방벽(밖으로부터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쌓은 벽)**을 건설 중이다. 사람들은 돌 블록으로 이 방벽을 쌓고 있다. 이것은 [ **연안(①강이나 호수 바다를 따라 잇달아 있는 육지 ②육지와 면한 바다, 강, 호수 따위의 물가)**을 **바다로부터 격리(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묻는 문제에서 '베네치아 사람들이 연안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 행동은 무엇인가?'**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연안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고, 연안을 바닷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무라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연안'의 개념과 베네치아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하는,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협(두 개의 육지를 연결하는 좁고 잘록한 땅)**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 ]:'무라치라는 방벽을 건설하는 이유(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묻는 문제에서 '베네치아 사람들이 '무라치'라는 방벽을 건설한 이유는 무엇인가?'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꼼꼼한 이해가 필요합니



다.)이다.

▶ 펠레스트리나를 방문한 괴테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산물이다. [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이어서 태곳적 바다의 수면이 점차 낮아진 결과, 아드리아해의 위쪽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되었다. 그 늪은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지만 썰물 때에는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 ]:연안이 만들어진 과정) [ 인간의 기술은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접수했으며, (자연을 정복한 베네치아인들) 그리하여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에워싸인 베네치아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은 썰물 때에도 주요 지점에 전함을 댈 수 있도록 늪에다 깊은 운하(배의 운항이나 수리, 관개 따위를 위하여 육지에 파 놓은 물길, '주데카 운하, 산마르코 운하, 대운하' 등이 있음.)를 준설하였다. ]([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만든 베네치아)(‘이 문단에서는 글쓰기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데,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군.’이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베네치아 사람들이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글쓰이의 인식이나 태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의 행위에 대한 글쓰이의 인식은 다음 문단에서 드러납니다.)

▶ 베네치아의 탄생 과정

[ 옛날 사람들이 지혜와 노력으로써 고안해 내고 실행한 것을, 이제는 현재의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노력으로써 보존해야 할 것이다. ]([ ]:글쓰이의 정복 지향적 자연관) 기다란 띠 모양의 물(섬이 아닌 본토)인 리도는 연안 호수를 바다와 갈라놓고 있는데, (리도의 역할)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뿐이다. 하나는 카스텔로 근처(바닷물이 들어오는 통로①)에 있고 또 하나는 그 맞은편 끝인 키오자 근처(바닷물이 들어오는 통로②)에 있다. 밀물은 보통 하루에 두 번씩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썰물도 하루에 두 번씩 나간다.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밀물 때에는 안쪽의 늪지대가 침수되는데, 가장 높은 곳은 물에 젖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그 존재가 눈에 보인다.(밀물일 때의 변화)

▶ 바닷물이 드나드는 늪지대와 리도의 역할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카스텔로 근처와 키오자 근처 이외의 길)을 찾아 그 지협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자연이 인간에게 끼치는 위해를 자연의 공격으로 여기는 글쓰이)이다. 리도와 펠레스트리나, 산피에트로 등지의 작은 마을들이 침수됨(바닷물이 새로운 길로 드나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①)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 버려 그곳의 소통로도 막혀 버릴 것이다.(바닷물이 새로운 길로 드나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②) 리도는 섬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협으로 변할 것(바닷물이 새로운 길로 드나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③)이다. 그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글쓰이의 당부)(‘리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새로운 길로 드나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글쓰이의 당부를 드러내고 있군.’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리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베네치아의 일부가 침수될 수 있음을 언급하는 내용을 통해 리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인간이 이미 점유(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해서)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 ]:자연을 개척과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글쓰이의 자연관이 드러남.)

▶ 리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파도(자연으로 인한 위협)가 유난히 높을 때는 바닷물이 단 두 곳으로만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곳은 막혀 있다는 사실이 무척 다행스럽다. 아무리 [ 맹렬하게 밀고 들어오려고 해도 바닷물은 들어올 수 없고, 몇 시간 후면 다시 썰물의 법칙에 따라 맹위(사나운 위세)를 누그러뜨린다. ]([ ]:자연의 법칙에 따

라 움직이는 바닷물)

▶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베네치아의 바닷물

어쨌든 베네치아 사람들은 그 문제(*유난히 높은 파도 등의 자연 현상으로 마을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베네치아를 천 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 그들은 또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지혜롭게 자연을 활용하는 베네치아인들*)

▶ 베네치아의 미래에 대한 예측

[지문 분석] 학습 활동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돌하르방 어디 가시나요*)

돌할으방 어딜 감수광

(*돌하르방 어디를 가시나요*)

어드레 어떻 헉연 감수광

(*어디로 어째서 가시나요*)

이레 갔닥 저레 갔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레 갔닥 이레 갔닥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아명 아명 헉여 봅써

(*아무리 아무리 해 보세요*)

이디도 기정 저디도 기정

(*여기도 벼랑 저기도 벼랑*)

저디도 바당 이디도 바당(*벼랑과 바다에 둘러싸인 제주도의 자연 환경이 드러남.*)

(*저기도 바다 여기도 바다*)

바당드레 감수광 어드레 감수광

(*바다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아무디도 가지 말앙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이 섬을 지켜 줍써(*기복 신앙적 요소가 드러남.*)

(*이 섬을 지켜 주세요*)

제주섬을 슬퍼 줍써

(*제주 섬을 살피 주세요*)

이 섬의 구신이 되어 줍써(*돌하르방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김.*)

(*이 섬의 귀신이 되어 주세요*)

돌할으방 곱닥 헉게 생겨

(*돌하르방 곱다랗게 생겨*)

[ 큰 감튀도 써아지곡

(큰 모자도 써가지고)

늦은 박박 얹으곡

(얼굴은 박박 얹고)

콘 무사 경 크곡

(코는 왜 그리 크고)

눈방울은 무사사 경 큼광

(눈방울은 왜 그리도 큰지)

흠메긴 무사 경 솔친디

(손목은 왜 그리도 굵은지)

곱닥하게도 잘 생겼쩌

(곱다랴게도 잘 생겼네)

든직헉곡 든직 헉게 1([ ]:돌하르방의 외양 묘사)

(듬직하고 듬직한 것이)

돌할으방이여 돌할으방이여

(돌하르방이구나 돌하르방이구나)

돌할으방만 민영 살암쩌

(돌하르방만 믿고 사네)

돌할으방 어딜 감수광

(돌하르방 어디를 가시나요)

아무디도 가지 말앙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제주섬을 슬퍼 줍써(기복 신앙적 요소가 드러남.)

(제주섬을 살피 주세요)



**고2독서  
비상**

**5(3)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론 확인]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란 무엇일까**

여러 지역의 문화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태도이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양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글을 읽는 것(여러 지역의 문화를 \_\_\_ 있게 이해하기 위한 \_\_\_ 활동)이다. 다양한 지역의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다양한 \_\_\_)은 물론이고,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 문화권 등(다양한 \_\_\_) 전 세계의 글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읽어야 한다.(다양한 지역의 \_\_\_을 읽는 \_\_\_) 이때 문화적 편견( \_\_\_이 속한 문화와 \_\_\_ 문화적 행위에 대해 \_\_\_으로 여기는 태도나 인식)을 버리고 각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며, 글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가 중요하다.(다양한 지역의 글을 읽을 때 \_\_\_할 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문화의 특수성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특수성을 넘어 존재하는 문화의 보편성까지 깨달을 수 있다.(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의 \_\_\_)

**[지문 확인]**

**㉠ 나무의 힘**

1900년대 초 숲이 우거져 있던 케냐의 고원 지대는 토질(흙의 \_\_\_)이 뛰어나 농작물 생산량이 풍부했고 비교적 인구 밀도가 높았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드넓은 보존림을 가꾸었는데, 그곳에는 코끼리와 표범, 물소, 그 밖에 다른 동물들이 수없이 많이 살았다.( \_\_\_가 잘 보존된 환경) 케냐 사람들은 이 보존림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나무를 베었지만, 관습적으로 덤불이 자란 곳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곳 위주로 집을 짓거나 거기서 땀감을 구했을 뿐 더 크고 곧은 나무들에는 손대지 않았다.(케냐인들의 \_\_\_인 자연 \_\_\_ 방법)

▶ 관습적으로 나무를 보호한 케냐 사람들

케냐 사람들이 크고 곧은 나무를 보호한 데에는 나무에 정령(산천초목이나 무생물 따위의 여러 가지 \_\_\_에 깃들어 있다는 \_\_\_ 원시 종교의 숭배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 또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키쿠유(글쓰기가 속한 부족) 사람들은 베어지지 않고 서 있는 나무를 ‘숲의 벌목에 저항하는 나무’라는 뜻인 무레마키리티라 불렀으며, 베어진 나무들의 [ 정령이 이 나무들에 깃들었다고 여겼다. 그리고 정령이 다른 나무로 옮겨 간 뒤에야 이 나무들을 벨 수 있었다. 사람들은 베어낼 나무에 나뭇가지를 기대어 놓았다가 다른 나무로 옮기거나, 나무를 베자마자 그 자리에 곧바로 또 다른 나무를 심는 방식(나무의 \_\_\_이 다른 나무로 \_\_\_가도록 하기 위해 케냐 사람들이 한 \_\_\_)으로 나무의 정령을 다른 나무로 옮겨 가게 했다. ]([ ]:키쿠유 사람들이 정령이 깃든 나무를 \_\_\_ 방법) 그런 조심스러움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은 것은 분명하다.(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 ‘ \_\_\_ ’이라는 단어는 현대 사회의 벌목에 대한 글쓰기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말임.)(‘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았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꼼꼼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은 키쿠유 사람들의 벌목 관습

많은 공동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무 그 자체( \_\_\_를 가리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나무나 관목(키가 작고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며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을 정하고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 그 밑에 제물을 바쳤다. 키쿠유 사회에서는 이런 나무 가운데 하나가

무구모라 불리는 무화과나무였다. 모든 무화과나무(무구모라 불리는 무화과나무)가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키쿠유 제사장들은 무화과나무가 있는 곳에서만 제의(\_\_\_\_의 의식)를 올렸다. 제의가 열린 무화과나무와 그 주변은 신성한 곳이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 가까이 있는 무화과나무 근처에서는 땀감으로 쓸 잔가지를 주워 오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이르셨다.(제의가 열리는 나무와 그 주변을 \_\_\_\_\_ 여긴 키쿠유 사람들)(키쿠유 사람들은 무화과나무를 신성히 여겨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_\_\_\_\_만 주워서 \_\_\_\_\_으로 사용했구나.'가 \_\_\_\_\_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신성히 여긴다는 것은 맞지만 잔가지를 주워서 땀감으로 사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 안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숨어있을 수 있으니 선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 나무는 '하느님의 나무'(무화과나무를 신성히 여기는 키쿠유 사람들의 \_\_\_\_\_이 드러나는 \_\_\_\_\_)이기 때문이다.

▶ 특정한 나무나 관목을 숭배하는 아프리카의 많은 공동체

무화과나무를 하느님의 나무로 인식하는 데는 일종의 생태학적 추론이 뒷받침된다. 깊이 뺏은 무화과나무 뿌리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한다.(무화과나무의 \_\_\_\_\_ 역할) 따라서 무화과나무를 죽이거나 해치면, 흙이 불안정해지고 물의 저장과 방출이 어려워진다.(무화과나무가 \_\_\_\_\_의 생태학적 변화) 무화과나무를 약재나 식량으로 이용해 왔을 많은 사람이, 때때로 겪어야 했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무화과나무의 생태학적 역할 덕분임.)는 바로 여기에 있다.

▶ 나무를 숭배하는 생태학적 이유

인류 문명이 시작된 뒤로 나무는 식량과 약재, 건축 재료(나무의 \_\_\_\_\_)였을 뿐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신과 연결되는 장소(나무의 \_\_\_\_\_)였다. [ 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생명체 가운데 하나이므로, (인류가 나무를 \_\_\_\_\_ 관점에서 인식하는 \_\_\_\_\_) 인류가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_\_\_\_\_ 여기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나무가 식량과 약재, 건축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인류는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한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상 사람들이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한 이유는 나무의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무는 \_\_\_\_\_을 겪은 \_\_\_\_\_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종류의 나무들은 영적으로 중요하다. [ 가나 남부의 많은 공동체는 백단향과 이로코, 리아나를 성스럽게 인식한다. 특히 가나 은코란자와 말라위 일대에 있는 신성한 숲들과 요루바족 여신 오순에게 바쳐진 나이지리아 오쇼그보 근처의 숲(성스러운 숲, Sacred Grove)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유네스코에서 세계 유산으로 지정했다. ]([ ]:'나라가 아닌 \_\_\_\_\_ 중심의 글쓰이의 관점을 알 수 있음.)

▶ 나무를 숭배하는 종교적 이유

나무가 주는 그늘과 공간의 영적 울림(\_\_\_\_\_가 공동체 전체에게 \_\_\_\_\_ 장소가 되는 이유) 때문에 나무는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나무 아래 모여 앞일을 의논하고, 찬반이 갈리는 문제에 관해 부족 어른이 판단을 내리고는 한다. 따라서 특정한 나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공동체의 \_\_\_\_\_와 \_\_\_\_\_를 \_\_\_\_\_하는 장소로서 이어져 왔기 때문)'(특정한 나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나무는 신성한 것이며,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은 나무를 \_\_\_\_\_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므로 특정 나무가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키쿠유족은 자녀 양육이 끝난 사람들(= \_\_\_\_\_)을 공동체 생활 양식의 수호자이자 지혜로운 후견인으로 여겼다. 따라서 그들은 중재자이자 판관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부족의 어른 자리에 앉아 시이기나무 막대를 쥐고 있었다. 그것은 [ 폭력이 용인되지(용납되어 인정되지) 않는다는 표시 ]([ ]:'시이기나무의 의미')였다. 이런 관례는 [ 평화 협정(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에 조인하는(국제법상 \_\_\_\_\_ 체결 때 조약 당사국의 대표자가 조약문에 \_\_\_\_\_하여 서명하는) 것만큼이나 구속력을 지녔고, 공동체 내부에서 그리고 공동체끼리 평화를 유

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 ]: \_\_\_\_\_ 에서 문제를 \_\_\_\_\_ 하던 관례의 의의) 신성한 숲과 그 나무와 숲에 부여된 영적이고도 상징적인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나무는 언제나 우리의 동반자( \_\_\_\_\_ 에 대한 \_\_\_\_\_ 의 \_\_\_\_\_ 을 드러내는 단어)였다.

▶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나무

나는 어느 날 콩고에서 200년 된 사펠리나무가 땅에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 무척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다.(사펠리나무가 베어질 때의 \_\_\_\_\_) 나무가 쓰러질 때 전 세계 모든 나무와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메아리가 울렸다.( \_\_\_\_\_ 가 베어질 때의 \_\_\_\_\_) 어쩌면 나는 나무의 수령(나무의 나이)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나 자신의 어떤 것이 들어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 사펠리나무를 베는 광경을 본 글쓴이의 심경

나는 그 나무가 [ 한 사람의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오래 살아온 강건한 유기체(생물처럼 물질이 \_\_\_\_\_ 으로 구성되어 생활 기능을 가지게 된 \_\_\_\_\_)가 되기까지 ]([ ]: 나무의 성장 과정, 대조적 이미지의 '작은 씨앗'을 통해 '강건한 유기체'가 된 나무의 경이로움을 강조함.)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 감감한 흙과 눈부신 햇살과 촉촉한 물기에서 양분을 얻는 그런 여정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도, 나무는 여전히 신비로운 구석이 있다. ]([ ]: 나무에 대한 \_\_\_\_\_) 그렇게 위엄 있고 영구적인(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_\_\_\_\_ 때문임.) 생명이 그토록 작고 어린 것(나무의 \_\_\_\_\_)에서 비롯될 수 있다니. [ 뿌리는 아래로 가지는 위로 뻗은 모습은 아름답기만 하고, 그 복잡다단한 자연 변화는 우리의 과학 기술이 아무리 정교하게 발전해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나무에 대한 \_\_\_\_\_)(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예찬적 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시조를 선지로 제시하고 화자의 태도가 글쓴이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 중에는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이는 작품이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비하여 \_\_\_\_\_ 태도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작품과 출제된 시조를 확인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무의 신비로운 삶

사펠리나무에서 나온 목재의 절반 이상이 연기로 사라진다는 사실(필요한 부분 외에는 모두 태우기 때문, 글쓴이가 신성하게 여기는 나무를 무분별하게 \_\_\_\_\_ 하는 모습)('사펠리나무에 대해 무분별한 벌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_\_\_\_\_ 을 목재로 \_\_\_\_\_ 하기 때문이구나.'가 \_\_\_\_\_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사펠리나무에 대한 무분별한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옳지만, 나무의 대부분이 목재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절반 이상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태워버리며 글쓴이는 이러한 사실에 \_\_\_\_\_ 과 \_\_\_\_\_ 을 느끼고 있습니다.)에 나는 당혹스러웠다. [ 그 나무는 베어져 쓰러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비바람을 견디고 빗물에 흠뻑 젖고, 건기에도 끈게 서 있을 수 있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 ]: 글쓴이가 당혹스럽다고 말한 이유, 다양한 \_\_\_\_\_ 과 \_\_\_\_\_ 을 견뎌낸 나무를 \_\_\_\_\_ 인간의 행위에 대한 유감을 알 수 있음.) 가지에는 온갖 종류의 곤충들이 살았다.(여러 동물과 \_\_\_\_\_ 사는 나무의 생명력) 가끔 가지가 한두 개쯤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 동물과 새들이 몸통에 구멍을 뚫거나 속을 파먹을 수도 있지만 나무는 썩 없이 자라났다. 하지만 이제 그 나무는 없다. 살아 있기보다는 죽어야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에.(글쓴이의 \_\_\_\_\_ 어조, \_\_\_\_\_ 을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임.)

▶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세태에 대한 아쉬움

[ 우리가 길러야 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은 경험(자연을 \_\_\_\_\_ 만나는 일)에서 비롯된다. ]([ ]: '자연'을 직접 만나는 경험에서 자연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글쓴이는 자연은 보살피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며,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느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_\_\_\_\_ 을 \_\_\_\_\_ 하는 인간의 행위가 이러한 \_\_\_\_\_ 을 할 \_\_\_\_\_ 를 \_\_\_\_\_ 이라고 여기므로 이러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연, 특히 야생의 모습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채운다. 우리가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보살피려면 그것과 직접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 (자연과 만나는 일의 \_\_\_\_\_) 자연을 보고 냄새 맡고 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을 잇을 것이고, 우리 영혼도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_\_\_\_\_ 만나는 것이 \_\_\_\_\_ 한 이유) 불행하게도 요즘 아이들은 자연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나무 한 그루 심어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자연을 접해 본 적이 없는 요즘 아이들에 대한 \_\_\_\_\_) 이들(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일을 놓치고 있는 \_\_\_\_\_, 아이들이 자연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_\_\_\_\_)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을 즈음에는 이미 때가 늦었을 것이다. 신성한 숲은 한번 사라지면 결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살피야 하는 \_\_\_\_\_)

▶ 나무와 숲에 대한 글쓴이의 당부

☐ 이탈리아 기행

[9월 29일, 미카엘 제 전야]

베네치아에서 무엇보다도 내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민중(괴테가 주목한 베네치아의 \_\_\_\_\_)이다. 필연적이고 무의식적인 존재인 거대한 대중말이다. 이들 일족은 재미 삼아 이 섬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다. (\_\_\_\_\_인 훈족의 \_\_\_\_\_을 받던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 지역 사람들이 \_\_\_\_\_로 \_\_\_\_\_하고 그 땅을 \_\_\_\_\_한 것을 의미함.)('이민족의 위협으로 인해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베네치아로 이주한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글의 내용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습서와 나무아카데미 분석 파일을 활용하여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하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고난이 가져다준 교훈에 따라 그들은 가장 불리한 지역(북쪽은 포강에서 내려온 모래와 흙이 쌓여 \_\_\_\_\_가 형성되어 있고, 남쪽은 아드리아해에서 밀려드는 \_\_\_\_\_의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해 넓은 \_\_\_\_\_이 형성됨. 섬이 많아 접근이 어려움.)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훈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점이 되었고, (\_\_\_\_\_의 요지가 됨.)('글쓴이가 베네치아 민중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이들이 겪었던 상황에는 \_\_\_\_\_(轉禍爲福)이라는 한자 성어가 어울리는군.'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민족의 \_\_\_\_\_이 훗날 \_\_\_\_\_가 되며 부흥하게 된 것은 \_\_\_\_\_한 일이 바뀌어 오히려 \_\_\_\_\_이 되었다는 의미의 한자 성어 전화위복(轉禍爲福)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인간의 앞일은 예측하기 힘들다는 의미의 한자 성어 \_\_\_\_\_(塞翁之馬)도 출제될 수 있으니 미리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북쪽의 전 지역이 여전히 암흑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현명하게 대처했다.(염전, 어업, 선박 및 운송업을 주로 함.) 따라서 그들이 번창하고 부유해진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글쓴이는 자연을 점유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베네치아인들을 예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유를 짐작할 수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글쓴이가 자연을 정복한 베네치아인들이 부를 누리는 것에 대해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베네치아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_\_\_\_\_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글쓴이는 자연과 인간을 합일의 대상이 아니라 \_\_\_\_\_적 대상으로 여기며 인간이 자연을 \_\_\_\_\_, \_\_\_\_\_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베네치아 민중에 대한 괴테의 평가

점차 집들이 뻥뻥이 들어서고, 모래땅과 늪지는 암석처럼 단단한 지반으로 바뀌어 갔다. (인공 \_\_\_\_\_을 건설함.)('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해 베네치아의 땅이 점차 안정화되었음을 의미한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의 모래땅과 늪지는 집 등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베네치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지반을 건설한 것을 통해 암석처럼 단단한 것으로 바뀌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집들은 조밀하게 심

어진 나무들처럼 높이 솟구쳤다. 옆으로 확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집들이 뽀뽀이 높게 들어선 이유는 섬이라는 \_\_\_\_\_ 때문)(‘베네치아 건물이 나무들처럼 높이 솟구친 이유는 높이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이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의 건물이 높은 이유는 제한적인 땅의 넓이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이란 마땅히 한 치의 땅이라도 탐이 나는데, 처음부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도, 양편의 집들을 분리하고 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폭으로밖에 내지 않았다.(\_\_\_\_\_ 공간을 최대한 \_\_\_\_\_ 하여 도시를 건설함) 어쨌거나 그들에게는 물이 거리와 광장과 산책로를 대신했다.(수로와 바다 등이 다양한 역할을 함.)

▶ 베네치아의 지리적 특성 ①

뱀처럼 구불거리는 대운하(\_\_\_\_\_를 \_\_\_\_\_에 \_\_\_\_\_함)는 세계의 어떤 도로에도 손색이 없고, [ 세계의 어떤 광장도 산마르코 광장 앞의 공간(베네치아 본토가 둘러싼 바다)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공간이란 베네치아 본토가 반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넓은 바다를 말한다. 베네치아가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성격의 도시인 것처럼 베네치아 사람들도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 ‘산마르코 광장 앞에는 반달 모양의 공터가 있으며 이는 세계의 어떤 광장보다도 독보적인 공간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산마르코 광장 앞의 공터는 베네치아 본토가 \_\_\_\_\_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넓은 바다이며, 글쓴이는 이 공간에 대해 세계의 어떤 광장도 상대할 수 없는 \_\_\_\_\_인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선 도시 전체의 인상을 확실히 포착하기 위해 서둘러 숙소를 나섰다.(\_\_\_\_\_이 드러남. 기행문의 특성) 그리고 안내자도 없이 동서남북의 방위만을 확인하면서 도시의 미로 속으로 들어섰다. 도시는 크고 작은 운하들이 이리저리 교차하고 있었고, 또 그 위로는 크고 작은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었다.(베네치아의 \_\_\_\_\_) 이 도시 전체가 얼마나 좁고 번잡한지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골목은 대개 두 팔을 벌리면 달을 정도의 폭이다.(베네치아의 \_\_\_\_\_) 아주 좁은 곳에서는 두 팔을 옆구리에 대기만 해도 팔꿈치가 벽에 닿는다. 물론 가끔가다 좀 넓은 길도 있고, 여기서저 작은 광장도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모든 공간이 좁다고 할 수 있다.(전체적인 도시의 \_\_\_\_\_)

▶ 베네치아의 지리적 특성 ②

[10월 9일]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근사한 날이었다! 키오자 맞은편에 있는 펠레스트리나를 방문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곳에 ‘무라치’라고 하는, 바다에 맞서는 거대한 방벽(밖으로부터 \_\_\_\_\_을 막으려고 쌓은 \_\_\_\_\_)을 건설 중이다. 사람들은 돌 블록으로 이 방벽을 쌓고 있다. 이것은 [ 연안(①강이나 호수 바다를 따라 잇달아 있는 육지 ②육지와 면한 바다, 강, 호수 따위의 물가)을 바다로부터 격리(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묻는 문제에서 ‘베네치아 사람들이 연안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 행동은 무엇인가?’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연안으로 \_\_\_\_\_을 \_\_\_\_\_은 하지 \_\_\_\_\_, 연안을 바닷물로부터 \_\_\_\_\_시키기 위해 ‘\_\_\_\_\_’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연안’의 개념과 베네치아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하는,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협(두 개의 육지를 연결하는 좁고 잘록한 땅)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 ]: \_\_\_\_\_라는 방벽을 \_\_\_\_\_하는 \_\_\_\_\_)(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묻는 문제에서 ‘베네치아 사람들이 ‘무라치’라는 방벽을 건설한 이유는 무엇인가?’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꼼꼼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이다.

▶ 펠레스트리나를 방문한 괴테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산물이다. [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이어서 태곳적 바다의 수면이 점차 낮아진 결과, 아드리아해의 위쪽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되었다. 그 늪은 밀물 때



에는 바닷물에 잠기지만 썰물 때에는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1([ ]:연안이 만들어진 \_\_\_\_ ) [ 인간의 기술은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접수했으며, (자연을 \_\_\_\_ 한 베네치아인들) 그리하여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에워싸인 베네치아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은 썰물 때에도 주요 지점에 전함을 댈 수 있도록 늪에다 깊은 운하(배의 운항이나 수리, 관개 따위를 위하여 \_\_\_\_ 에 파 놓은 \_\_\_\_, '주데카 운하, 산마르코 운하, 대운하' 등이 있음.)를 준설하였다. 1([ ]: \_\_\_\_ 을 적극적으로 \_\_\_\_ 하여 만든 베네치아)(‘이 문단에서는 글쓴이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데,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군.’이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베네치아 사람들이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글쓴이의 인식이나 태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의 행위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은 다음 문단에서 드러납니다.)

▶ 베네치아의 탄생 과정

[ 옛날 사람들이 지혜와 노력으로써 고안해 내고 실행한 것을, 이제는 현재의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노력으로써 보존해야 할 것이다. 1([ ]:글쓴이의 \_\_\_\_ 지향적 \_\_\_\_ ) 기다란 띠 모양의 물(섬이 아닌 본토)인 리도는 연안 호수를 바다와 갈라놓고 있는데, (리도의 \_\_\_\_ )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뿐이다. 하나는 카스텔로 근처(바닷물이 들어오는 \_\_\_\_ )에 있고 또 하나는 그 맞은편 끝인 키오자 근처(바닷물이 들어오는 \_\_\_\_ )에 있다. 밀물은 보통 하루에 두 번씩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썰물도 하루에 두 번씩 나간다.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밀물 때에는 안쪽의 늪지대가 침수되는데, 가장 높은 곳은 물에 젖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그 존재가 눈에 보인다. ( \_\_\_\_ 일 때의 \_\_\_\_ )

▶ 바닷물이 드나드는 늪지대와 리도의 역할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카스텔로 근처와 키오자 근처 이외의 길)을 찾아 그 지협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자연이 인간에게 끼치는 위해를 \_\_\_\_ 으로 여기는 글쓴이)이다. 리도와 펠레스트리나, 산피에트로 등지의 작은 마을들이 침수됨(바닷물이 새로운 길로 드나들 때 발생할 수 있는 \_\_\_\_ )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 버려 그곳의 소통로도 막혀 버릴 것이다.(바닷물이 새로운 길로 드나들 때 발생할 수 있는 \_\_\_\_ ) 리도는 섬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협으로 변할 것(바닷물이 새로운 길로 드나들 때 발생할 수 있는 \_\_\_\_ )이다. 그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글쓴이의 \_\_\_\_ )(‘리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새로운 길로 드나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글쓴이의 당부를 드러내고 있군.’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리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베네치아의 일부가 \_\_\_\_ 될 수 있음을 언급하는 내용을 통해 \_\_\_\_ 를 보호해야 하는 \_\_\_\_ 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인간이 이미 점유(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해서)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1([ ]:자연을 \_\_\_\_ 과 \_\_\_\_ 의 대상으로 여기는 글쓴이의 \_\_\_\_ 이 드러남.)

▶ 리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파도(자연으로 인한 \_\_\_\_ )가 유난히 높을 때는 바닷물이 단 두 곳으로만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곳은 막혀 있다는 사실이 무척 다행스럽다. 아무리 [ 맹렬하게 밀고 들어오려고 해도 바닷물은 들어올 수 없고, 몇 시간 후면 다시 썰물의 법칙에 따라 맹위(사나운 \_\_\_\_ )를 누그러뜨린다. 1([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바닷물)

▶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베네치아의 바닷물

어쨌든 베네치아 사람들은 그 문제(유난히 \_\_\_\_ 파도 등의 자연 현상으로 마을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베네치아를 천 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 그들은 또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지혜롭게 자연을 \_\_\_\_ 하는 베네치아인들)

▶ 베네치아의 미래에 대한 예측

[지문 분석] 학습 활동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돌하르방 어디 \_\_\_\_\_)

돌할으방 어딜 감수광

(돌하르방 어디를 가시나요)

어드레 어떻 헉연 감수광

(어디로 \_\_\_\_\_ 가시나요)

이레 갔닥 저레 갔닥

(\_\_\_\_\_ 갔다 \_\_\_\_\_ 갔다)

저레 갔닥 이레 갔닥

(\_\_\_\_\_ 갔다 \_\_\_\_\_ 갔다)

아명 아명 헉여 뽕써

(\_\_\_\_\_ 아무리 해 보세요)

**이디도 기정 저디도 기정**

(여기도 \_\_\_\_\_ 저기도 \_\_\_\_\_)

**저디도 바당 이디도 바당**(\_\_\_\_\_ 과 \_\_\_\_\_ 에 둘러싸인 \_\_\_\_\_ 의 \_\_\_\_\_ 환경이 드러남.)

(저기도 \_\_\_\_\_ 여기도 \_\_\_\_\_)

바당드레 감수광 어드레 감수광

(\_\_\_\_\_ 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아무디도 가지 말앙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이 섬을 지켜 줍써**(\_\_\_\_\_ 적 요소가 드러남.)

(이 섬을 \_\_\_\_\_ 주세요)

제주섬을 슬퍼 줍써

(제주 섬을 \_\_\_\_\_ 주세요)

**이 섬의 구신이 되어 줍써**(돌하르방을 \_\_\_\_\_ 존재로 여김.)

(이 섬의 \_\_\_\_\_ 이 되어 주세요)

돌할으방 곱닥 헉게 생경

(돌하르방 \_\_\_\_\_ 생겨)

[ 큰 감튀도 써아지곡

(큰 \_\_\_\_\_ 도 써가지고)

늦은 박박 얹으곡

(\_\_\_\_\_ 은 박박 얹고)

콘 무사 경 크곡

(\_\_\_\_\_ 는 왜 그리 크고)

눈방울은 무사사 경 큼광  
(눈방울은 왜 그리도 큰지)  
흙메긴 무사 경 솔친디  
(\_\_\_\_은 왜 그리도 굵은지)  
굽닥하게도 잘 생겼쩌  
(굽다랗게도 잘 생겼네)  
든직헝곡 든직 헝게 1([ ]:돌하르방의 \_\_\_\_\_)  
(듬직하고 듬직한 것이)  
돌할으방이여 돌할으방이여  
(돌하르방이구나 돌하르방이구나)  
돌할으방만 민영 살암쩌  
(돌하르방만 \_\_\_\_\_)  
돌할으방 어딜 감수광  
(돌하르방 어디를 가시나요)  
아무디도 가지 말앙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제주섬을 슬퍼 줍써(\_\_\_\_\_적 요소가 드러남.)  
(제주섬을 살피 주세요)

**고2독서  
비상**

**5(3)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 나무의 힘

갈래	논설문
성격	설득적
제재	아프리카 나무와 숲
주제	자연의 신성성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부족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함.</li> <li>아프리카의 지역적 특색이 잘 드러남.</li> </ul>

2. 제재 구조도

서론	관습적으로 나무를 보호하는 케냐 사람들
본론1	나무를 숭배하게 된 생태학적, 종교적 근거
본론2	사펠리나무가 쓰러지는 광경을 본 글쓴이의 심경
결론	나무와 숲에 대한 글쓴이의 당부

3. 케냐인들의 자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외에는 보존림을 가꿈.</li> <li>크고 곧은 나무들은 보호하고, 덩불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자란 곳에서만 집을 짓거나 땔감을 구함.</li> <li>나무에 정령이 있다고 믿어 무지막지한 벌목을 하지 않음.</li> <li>무구모라 불리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제의를 올림.</li> </ul>
---

4. 나무를 숭배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무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함.</li> <li>나무는 식량과 약재, 건축 재료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li> <li>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생명체 가운데 하나로,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li> </ul>
--

5. 사펠리나무를 통해 느끼는 감정

사펠리나무가 생명력이 넘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의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씨앗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강건한 유기체가 되는 과정을 예찬함.</li> <li>깜깜한 흙과 눈부신 햇살과 촉촉한 물기에서 양분을 얻어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신비로움을 느낌.</li> </ul>
사펠리나무가 벌목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명력 넘치던 사펠리나무가 인간에 의해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당혹감을 느낌.</li> <li>무척 소중한 중요한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끼고, 전 세계 모든 나무와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메아리가 울리는 것처럼 느낌.</li> </ul>

6. 글쓴이의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은 우리의 영혼을 채운다.</li> <li>• 자연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을 잊고, 우리의 영혼도 시들 것이다.</li> <li>• 자연은 한번 사라지면 결코 되찾을 수 없다.</li> </ul>
--

7. 제재 개관 - 이탈리아 기행

갈래	기행문
성격	감상적, 예찬적
제재	베네치아의 역사와 현재 모습
주제	자연을 극복하고 이용하여 이룩한 도시인 베네치아에 대한 예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네치아를 여행하면서 느낀 것을 날짜순으로 기록함.</li> <li>• 베네치아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 등을 섬세한 묘사를 바탕으로 설명함.</li> </ul>

8. 제재 구조도

여정1	베네치아의 전체적인 인상
여정2	자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했던 베네치아인들에 대한 인상과 당부

9. 베네치아의 인상

민중의 특성	베네치아 민중은 가장 불리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찾고, 현명하게 대처한 덕분에 번창하고 부유해짐.
지리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이 거리와 광장과 산책로를 대신함.</li> <li>• 크고 작은 운하들이 이리저리 교차하고, 그 위로는 크고 작은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음.</li> <li>• 골목길은 대부분 좁고, 집은 나무 들처럼 높이 솟구침.</li> </ul>

10. 리도를 본 글쓴이의 생각

리도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도라는 지협이 연안 호수를 바다와 갈라놓아 두 곳의 통로로만 바닷물이 드나들게 막고 있음.</li> <li>• 무라치라는 방벽을 쌓아 리도를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려고 함.</li> </ul>
글쓴이의 생각	리도는 인간이 이미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이므로 자연이 멋대로 공격하거나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함.

11. 두 글에서 드러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 이용	<p>[나무의 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냐 사람들은 나무를 벨 때 나무의 <b>정령</b>을 다른 나무로 옮겨 가게 해 <b>무자비한 벌목</b>을 막음.</li> <li>• 특정한 나무나 <b>관목</b>을 정해 <b>숭배</b>하여 그 밑에 제물을 바치고, 그 근처에서는 잔가지도 <b>줍지 않음</b>.</li> <li>• 나무가 주는 <b>그늘</b>과 <b>영적 울림</b> 때문에 공동체 <b>전체</b>가 모이는 <b>중요한 장소</b>가 됨.</li> <li>• 키쿠유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에서 부족의 어른이 <b>시이기나무 막대</b>를 쥐고 있는 것은 <b>폭력</b>이 용인되지 <b>않는</b>다는 <b>상징적</b>인 의미임.</li> </ul> <p>[이탈리아 기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땅이 <b>넓지 않</b>기 때문에 집을 나무들처럼 <b>높</b>이 솟구치게 지음.</li> <li>• 여러 <b>섬</b>들을 <b>운하</b>와 <b>다리</b>로 <b>연결</b>하여 <b>도시</b>를 건설함.</li> <li>• <b>바닷물</b>이 <b>뿔뿔</b>하는 것을 <b>막</b>기 위해 <b>망벽</b>을 쌓음.</li> </ul>
자연에 대한 태도	<p>[나무의 힘]</p> <p>자연에 <b>감사</b>하고, 자연을 <b>보살피는</b> 태도가 중요하며, 자연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 믿음.</p> <p>[이탈리아 기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네치아 사람들은 <b>자연</b>을 <b>점유</b>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봄.</li> <li>• 베네치아인들은 베네치아의 <b>지리적 특성</b>을 최대한 <b>이용</b>하여 특정한 <b>목적</b>에 맞게 <b>형태와 방향</b>을 <b>부여</b>함.</li> </ul>

12. 제재 개관 -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향토적], [기복적]
제재	[돌하르방]
주제	[돌하르방이 제주 섬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b>방언</b>을 사용하여 <b>토속적</b>인 느낌을 줌.</li> <li>• 돌하르방이 제주 섬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b>기복 신앙</b>이 드러남.</li> </ul>

**고2독서  
비상**

**5(3)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내신 암기 TEST 1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 나무의 힘

갈래	□설문
성격	설□적
제재	아프리카 □무와 □
주제	자□의 □성성과 자연 보□의 □요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부족의 사□를 들어 자신의 □장을 뒷□침함.</li> <li>• 아프리카의 지□적 특색이 잘 드러남.</li> </ul>

2. 제재 구조도

서론	관□적으로 □무를 □호하는 케냐 사람들
본론1	나□를 □배하게 된 생□학적, □교적 근거
본론2	사□리나무가 □러지는 광경을 본 글 쓰이의 심□
결론	나무와 숲에 대한 글쓰이의 당□

3. 케냐인들의 자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을 경작하는 □지 □에는 보□림을 가꿈.</li> <li>• □고 □은 나무들은 보□하고, 덤불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자란 곳에서만 □을 짓거나 □감을 구함.</li> <li>• 나무에 정□이 있다고 믿어 □지막□한 벌목을 하지 않음.</li> <li>• 무구모라 불리는 □화과나무 밑에서 □의를 올림.</li> </ul>
---

4. 나무를 숭배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무는 □사태를 □방하고, 빗□을 땅에 저□하고 순□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함.</li> <li>• 나무는 식□과 □재, 건□ 재료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li> <li>• 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래 되고 가장 □생명□체 가운데 하나로, 사람을 치□하고, □로하며 □과 인간을 연□하는 역할을 함.</li> </ul>
---

5. 사펠리나무를 통해 느끼는 감정

사펠리나무가 생명력이 넘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의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은 씨□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건한 □기체가 되는 과정을 □찬함.</li> <li>• 캄□한 □과 □부신 □살과 촉촉한 물기에서 □분을 얻어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신□로움을 느낌.</li> </ul>
사펠리나무가 벌목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력 넘치던 사펠리나무가 인간에 의해 한□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당□감을 느낌.</li> <li>• 무척 □중하고 □요한 것이 무□진 □처럼 느끼고, 전 세계 모든 나무와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아리가 울리는 것처럼 느낌.</li> </ul>



6. 글쓴이의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은 우리의 □혼을 채운다.</li> <li>• 자연을 □접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을 □고, 우리의 영□도 시들 것이다.</li> <li>• 자연은 한번 사라지면 결코 되□을 수 □다.</li> </ul>
--

7. 제재 개관 - 이탈리아 기행

갈래	기□문
성격	감□적, □찬적
제재	□네치아의 □사와 현재 모□
주제	자□을 □복하고 이□하여 이룩한 도시인 베네치아에 대한 □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네치아를 □행하면서 느□ 것을 □짜순으로 기록함.</li> <li>• 베네치아의 □사와 지□적 특성 등을 섬세한 □사를 바탕으로 설명함.</li> </ul>

8. 제재 구조도

여정1	베네치아의 전체적인 □상
여정2	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용했던 베네치아인들에 대한 인□과 □부

9. 베네치아의 인상

민중의 특성	베네치아 민중은 가장 □리한 지□에서 자신들의 안□지대를 찾고, 현□하게 □처한 덕분에 □창하고 부□해짐.
지리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거□와 □장과 산□로를 대신함.</li> <li>• 크고 작은 □하들이 이리저리 교차하고, 그 위로는 크고 작은 다□들이 연결되어 있음.</li> <li>• 골목□은 대부분 □고, □은 나무들처럼 □이 솟구침.</li> </ul>

10. 리도를 본 글쓴이의 생각

리도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라는 지□이 □안 □수를 □다와 갈라놓아 □ 곳의 통□로만 바닷물이 드나들게 □고 □음.</li> <li>• 무라□라는 방□을 쌓아 리도를 거□ □도로부터 □호하려고 함.</li> </ul>
글쓴이의 생각	리□는 인간이 이미 점□해서 특정한 □적에 맞게 □태와 방□을 □여한 것이므로 자□이 멋대로 □격하거나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함.

11. 두 글에서 드러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 이용	<p>[나무의 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냐 사람들은 나무를 벨 때 나무의 정□을 다른 나무로 옮겨 가게 해 □자비한 □목을 막음.</li> <li>• 특정한 나무나 □목을 정해 숭□하여 그 밑에 제물을 바치고, 그 근처에서는 잔가지도 □지 □음.</li> <li>• 나무가 주는 그□과 □적 울□ 때문에 공동체 전□가 모이는 중□한 장□가 됨.</li> <li>• 키쿠유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에서 부족의 어른이 □이기나무 □대를 쥐고 있는 것은 폭□이 용인되지 □는다는 □징적인 의미임.</li> </ul> <p>[이탈리아 기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땅이 □지 □기 때문에 집을 나무 들처럼 □이 솟구치게 지음.</li> <li>• 여러 □들을 운□와 □리로 연□하여 □시를 건설함.</li> <li>• 바□물이 □람하는 것을 □기 위해 □벽을 쌓음.</li> </ul>
자연에 대한 태도	<p>[나무의 힘]</p> <p>자연에 □사하고, 자연을 □살피는 태도가 중요하며, 자연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 믿음.</p> <p>[이탈리아 기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네치아 사람들은 자□을 □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봄.</li> <li>• 베네치아인들은 베네치아의 □리적 □성을 최대한 이□하여 특정한 목□에 맞게 형□와 방□을 □여함.</li> </ul>

12. 제재 개관 -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갈래	자□시, □정시
성격	□토적, □복적
제재	□하르방
주제	돌□르방이 □주 섬을 지□주기를 □라는 마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언을 사용하여 토□적인 느낌을 줌.</li> <li>• 돌하르방이 제주 섬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기□ 신□이 드러남.</li> </ul>

**고2독서  
비상**

**5(3)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내신 암기 TEST 2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 나무의 힘

갈래	□□□
성격	□□□
제재	아프리카 □□와 □
주제	□□의 □□□□과 자연 □□의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부족의 □□를 들어 자신의 □□을 □□□함.</li> <li>• 아프리카의 □□□ □□이 잘 드러남.</li> </ul>

4. 나무를 숭배하는 이유

- 나무는 □□□를 □□하고, □□을 땅에 □□하고 □□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함.
- 나무는 □□과 □□, □□ □□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 □□ 가장 □□ □□ 가운데 하나로, 사람을 □□하고, □□하며 □□과 인간을 □□하는 역할을 함.

2. 제재 구조도

서론	□□□□으로 □□를 □□하는 케냐 사람들
본론1	□□를 □□하게 된 □□□□, □□□□ 근거
본론2	□□□□□□가 □□□□□□ 광경을 본 글쓴이의 □□
결론	나무와 숲에 대한 글쓴이의 □□

3. 케냐인들의 자연관

- 농작물을 경작하는 □□ □□에는 □□□□을 가꿈.
- □□ □□ □□들은 □□하고, 덩불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자란 곳에서만 □□을 짓거나 □□을 구함.
- 나무에 □□이 있다고 믿어 □□□□□□ 벌목을 하지 않음.
- 무구모라 불리는 □□□□□□ 밑에서 □□를 올림.

5. 사펠리나무를 통해 느끼는 감정

사펠리나무가 생명력이 넘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의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 □□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 □□□가 되는 과정을 □□□함.</li> <li>• □□□ □□과 □□□ □□□과 축축한 물기에서 □□을 얻어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을 느낌.</li> </ul>
사펠리나무가 벌목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력 넘치던 사펠리나무가 인간에 의해 □□□□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을 느낌.</li> <li>• 무척 □□하고 □□한 것이 □□□ □□처럼 느끼고, 전 세계 모든 나무와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가 울리는 것처럼 느낌.</li> </ul>

6. 글쓴이의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은 우리의 □□을 채운다.</li> <li>• 자연을 □□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을 □□, 우리의 □□도 시들 것이다.</li> <li>• 자연은 한번 사라지면 결코 □□□ □□□.</li> </ul>
---

7. 제재 개관 - 이탈리아 기행

갈래	□□□
성격	□□□, □□□
제재	□□□□의 □□와 현재 □□
주제	□□을 □□하고 □□하여 이룩한 도시인 베네치아에 대한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네치아를 □□하면서 □□ □□을 □□□□로 기록함.</li> <li>• 베네치아의 □□와 □□적 특성 등을 섬세한 □□를 바탕으로 설명함.</li> </ul>

8. 제재 구조도

여정1	베네치아의 전체적인 □□
여정2	□□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했던 베네치아인들에 대한 □□과 □□

9. 베네치아의 인상

민중의 특성	베네치아 민중은 가장 □□□ □□에서 자신들의 □□□□를 찾고, □□하게 □□한 덕분에 □□하고 □□해짐.
지리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와 □□과 □□□를 대신함.</li> <li>• 크고 작은 □□들이 이리저리 교차하고, 그 위로는 크고 작은 □□들이 연결되어 있음.</li> <li>• □□□은 대부분 □□, □□은 나무들처럼 □□ 솟구침.</li> </ul>

10. 리도를 본 글쓴이의 생각

리도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는 □□이 □□ □□를 □□와 갈라놓아 □□□의 □□로만 바닷물이 드나들게 □□ □□.</li> <li>• □□□라는 □□을 쌓아 리도를 □□ □□로부터 □□하려고 함.</li> </ul>
글쓴이의 생각	□□는 인간이 이미 □□해서 특정한 □□에 맞게 □□와 □□을 □□한 것이므로 □□이 멋대로 □□하거나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함.

11. 두 글에서 드러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 이용	<p>[나무의 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냐 사람들은 나무를 벨 때 나무의 □□을 다른 나무로 옮겨 가게 해 □□□□ □□을 막음.</li> <li>• 특정한 나무나 □□을 정해 □□하여 그 밑에 제물을 바치고, 그 근처에서는 잔가지도 □□ □□.</li> <li>• 나무가 주는 □□과 □□ □□ 때문에 공동체 □□가 모이는 □□한 □□가 됨.</li> <li>• 키쿠유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에서 부족의 어른이 □□□□□□ □□를 주고 있는 것은 □□이 용인되지 □□ □□는 □□적인 의미임.</li> </ul> <p>[이탈리아 기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땅이 □□ □□ 때문에 집을 나무들 처럼 □□ 솟구치게 지음.</li> <li>• 여러 □□들을 □□와 □□로 □□하여 □□를 건설함.</li> <li>• □□□□이 □□하는 것을 □□ 위해 □□을 쌓음.</li> </ul>
자연에 대한 태도	<p>[나무의 힘]</p> <p>자연에 □□하고, 자연을 □□□□ 태도가 중요하며, 자연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 믿음.</p> <p>[이탈리아 기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네치아 사람들은 □□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봄.</li> <li>• 베네치아인들은 베네치아의 □□□□ □□을 최대한 □□하여 특정한 □□ □□에 맞게 □□□□ □□을 □□함.</li> </ul>

12. 제재 개관 - 돌할르방 어디 감수광

갈래	□□□, □□□
성격	□□□, □□□
제재	□□□□
주제	□□□□이 □□ 섬을 □□□□를 □□□□ 마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을 사용하여 □□□□인 느낌을 줌.</li> <li>• 돌하르방이 제주 섬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 □□이 드러남.</li> </ul>

**고2독서  
비상**

**5(3)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내신 암기 TEST 3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 나무의 힘

갈래	_____
성격	_____
제재	아프리카 _____와 _____
주제	_____의 _____과 자연 _____의 _____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부족의 _____를 들어 자신의 _____을 _____함.</li> <li>• 아프리카의 _____이 잘 드러남.</li> </ul>

4. 나무를 숭배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무는 _____를 _____하고, _____을 땅에 _____하고 _____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함.</li> <li>• 나무는 _____과 _____, _____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li> <li>• 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_____ 가장 _____ 가운데 하나로, 사람을 _____하고, _____하며 _____과 인간을 _____하는 역할을 함.</li> </ul>
--

2. 제재 구조도

서론	_____으로 _____를 _____하는 케냐 사람들
본론1	_____를 _____하게 된 _____, _____근거
본론2	_____가 _____광경을 본 글쓴이의 _____
결론	나무와 숲에 대한 글쓴이의 _____

5. 사펠리나무를 통해 느끼는 감정

사펠리나무가 생명력이 넘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의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_____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_____가 되는 과정을 _____함.</li> <li>• _____과 _____과 축축한 물기에서 _____을 얻어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_____을 느낌.</li> </ul>
사펠리나무가 벌목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력 넘치던 사펠리나무가 인간에 의해 _____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_____을 느낌.</li> <li>• 무척 _____하고 _____한 것이 _____처럼 느끼고, 전 세계 모든 나무와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_____가 울리는 것처럼 느낌.</li> </ul>

3. 케냐인들의 자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을 경작하는 _____에는 _____을 가꿈.</li> <li>• _____들은 _____하고, 덩불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자란 곳에서만 _____을 짓거나 _____을 구함.</li> <li>• 나무에 _____이 있다고 믿어 _____벌목을 하지 않음.</li> <li>• 무구모라 불리는 _____ 밑에서 _____를 올림.</li> </ul>
--



6. 글쓴이의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은 우리의 ____을 채운다.</li> <li>• 자연을 ____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을 ____, 우리의 ____도 시들 것이다.</li> <li>• 자연은 한번 사라지면 결코 _____.</li> </ul>
---

7. 제재 개관 - 이탈리아 기행

갈래	_____
성격	_____, _____
제재	_____의 ____와 현재 ____
주제	____을 ____하고 ____하여 이룩한 도시인 베네치아에 대한 ____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네치아를 ____하면서 _____을 _____으로 기록함.</li> <li>• 베네치아의 ____와 ____적 특성 등을 섬세한 ____를 바탕으로 설명함.</li> </ul>

8. 제재 구조도

여정1	베네치아의 전체적인 ____
여정2	____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____했던 베네치아인들에 대한 ____과 ____

9. 베네치아의 인상

민중의 특성	베네치아 민중은 가장 _____에서 자신들의 _____를 찾고, _____하게 _____한 덕분에 _____하고 _____해짐.
지리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____이 ____와 ____과 _____를 대신함.</li> <li>• 크고 작은 _____들이 이리저리 교차하고, 그 위로는 크고 작은 _____들이 연결되어 있음.</li> <li>• _____은 대부분 _____, ____은 나무들처럼 _____ 솟구침.</li> </ul>

10. 리도를 본 글쓴이의 생각

리도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____라는 ____이 _____를 ____와 갈라놓아 _____의 ____로만 바닷물이 드나들게 _____.</li> <li>• _____라는 ____을 쌓아 리도를 _____로부터 ____하려고 함.</li> </ul>
글쓴이의 생각	____는 인간이 이미 ____해서 특정한 ____에 맞게 ____와 ____을 ____한 것이므로 ____이 멋대로 ____하거나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함.

11. 두 글에서 드러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 이용	<p>[나무의 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냐 사람들은 나무를 벨 때 나무의 ____을 다른 나무로 옮겨 가게 해 _____을 막음.</li> <li>• 특정한 나무나 ____을 정해 ____하여 그 밑에 제물을 바치고, 그 근처에서는 잔가지도 _____.</li> <li>• 나무가 주는 ____과 _____때문에 공동체 ____가 모이는 ____한 ____가 됨.</li> <li>• 키쿠유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에서 부족의 어른이 _____를 쥐고 있는 것은 ____이 용인되지 _____는 ____적인 의미임.</li> </ul> <p>[이탈리아 기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땅이 _____ 때문에 집을 나무 들처럼 ____ 솟구치게 지음.</li> <li>• 여러 ____들을 ____와 ____로 ____하여 ____를 건설함.</li> <li>• ____이 ____하는 것을 ____ 위해 ____을 쌓음.</li> </ul>
자연에 대한 태도	<p>[나무의 힘]</p> <p>자연에 ____하고, 자연을 _____태도가 중요하며, 자연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 믿음.</p> <p>[이탈리아 기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네치아 사람들은 ____을 ____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봄.</li> <li>• 베네치아인들은 베네치아의 _____을 최대한 ____하여 특정한 ____에 맞게 _____을 ____함.</li> </ul>

12. 제재 개관 -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갈래	_____, _____
성격	_____, _____
제재	_____
주제	_____이 ____ 섬을 _____를 ____ 마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____을 사용하여 _____인 느낌을 줌.</li> <li>• 돌하르방이 제주 섬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_____이 드러남.</li> </ul>

서지정보  
 저자 이태훈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2261-3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2.01.11  
 가격 1,500원

